

나가타 가문과 도조

나가타 가문은 에도 시대(1603~1867)에 활약했던 다카야마의 상인으로 일본술을 빚는 주조업자였다. 당시에는 무사 이외의 계급은 성씨를 공적인 자리에서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상인 계급이었던 나가타 가문은 ‘오사카야’라는 옥호(가게나 집에 붙이는 칭호)로 불렸다. 그 후 1854년, 도쿄만 시나가와 포대(현재의 오다이바) 건설을 위해 고액의 기부를 한 공이 인정되어 도쿠가와 막부로부터 ‘나가타’라는 성씨를 쓸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았다.

메이지 시대(1868~1912)에 들어선 이후 나가타 가문은 정계에도 진출했다. 1889년에는 나가타 기치우에몬 마사토시(1848~1901)가 다카야마 마을의 초대 촌장을 지냈다. 그로부터 5년 뒤에는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 마사토시 덕분에 나가타 가문은 은행업, 견직물업, 목재업을 비롯한 다양한 지역 특산자원 사업에 관여하게 되었다. 마사토시의 아들인 나가타 기치우에몬 나오쓰구(1873~1918)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1904년에 다카야마 시장으로 취임했고, 1917년에는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 이 과정에서 나가타 가문은 막대한 부를 쌓았는데, 1932년에는 다카야마의 다른 모든 가문보다 많은 세금을 납부했다는 기록도 남아있다.

나가타 가문의 재산 규모는 당시 소유했던 6개의 도조만 봐도 알 수 있다. 1875년에는 다카야마에서 큰 화재가 발생하여 1,300채 이상의 가옥이 소실되었다. 나가타 가문의 첫 번째 도조는 그 후 반년이 지나고 나서 지어졌다. 1914년에는 저택 주변에 두꺼운 벽으로 된 5개의 도조가 더 지어졌다. 이 도조들은 만일의 화재에 대비해 저택 전체를 지키는 방화벽 역할을 했다.

나가타 가문의 도조 중 가장 규모가 큰 것은 술창고로 사용되었다. 이 술창고는 다카야마에서 가장 큰 도조 중 하나이다. 다른 도조에는 쌀, 사업 관련 서류, 의류, 가구가 보관되어 있었다. 술창고 옆에 있는 작은 건물은 누룩쌀(술을 빚기 위해 누룩곰팡이를 번식시킨 쌀)을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되었다. 1953년에는 나가타 가문의 저택 건물과 도조를 재사용해 박물관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후에 다카야마마치 박물관이 되었다.